

식료품값 인상 ‘쓰나미’ 몰려온다

우유·탄산음료 이어 커피·맥주 등 확산

겨울 간식 고구마·밤값 40%까지 올라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 띠는 식료품 인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우유를 비롯한 유가공품이 줄줄이 오르는데 이어 음료와 주류까지 인상 대열에 가세할 채비를 보이고 있다. 우유를 신축으로 발효유, 탄산음료, 커피, 맥주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겨울 주요 간식거리인 고구마와 밤값마저 폭등해 서민들의 어려움 가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음료 주류 가격인상 줄줄이 대기=국내 최대 업체인 롯데 칠성은 18일부터 칠성사이다와 펄시콜라 등 5가지 음료의 출고가를 최고 9% 올린다고 17일 밝혔다. 펄시콜라와 계토레이는 각 9%, 칠성사이다는 7% 오르고 커피인 레스비는 5% 가량 오른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올 들어 설탕 가격이 30% 이상 뛰는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가격을 조정했다”며 “가

격을 올린 제품이 많지 않고 일부는 출고가를 내려 전체적으로는 3.8% 정도 가격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코카콜라음료는 지난 1일 코카콜라 8.6%, 스프라이트와 조지아커피 등 18개 제품 가격을 6~9% 올렸다. 따라서 국내 1.2위 음료 회사가 나란히 올라와 사이다, 커피 음료 등 인기상품 중심으로 가격을 올려 해태음료, 웅진식품 등 다른 음료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쳐 제품 값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예산을 달래주는 주류 가격도 흔들리고 있다. 맥주업계 2위인 오비맥주가 이달 하순께 카스와 오비 맥주 출고가를 9.6% 인상할 계획이다. 국제청과 가격인상 시기와 인상폭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오비맥주는 연내 9.6%의 가격 인상을 할 계획이다.

오비맥주가 가격인상을 할 경우 하이트맥주와 소주나 위스키 등 다른 술도 연쇄적 가격 인상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이 악화될 라면도 연말을 틈타 가격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흰우유값 인상에 유가공품 전체 들쭉=흰우유값 인상으로 인한 여파가 유가공품 전체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최근 대형마트에서 2200원 판매하던 1L 흰우유 가격을 2350원 받고 있다. 또 남양유업은 지난 10일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등 소매점에 공급하는 ‘불가리스’ 6종 등 8종의 공급가를 일제히 올렸다. 매일유업도 ‘카페라떼’를 100원 올려 1300원 받고 있다. 빙그레의 최고 인기 상품 바나나맛 우유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이 올랐고, 한국아쿠르트의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밀’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 더 비싸졌다.

▲겨울간식 고구마·밤값 급등=겨울철 대표 간식인 고구마와 밤값이 올 여름 호우 영향으로 폭등해 먹기 어려워 질 전망이다. 17일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 따르면 밤값은 작년 동기대비 2배가량 올랐고, 고구마도 40% 가량 폭등했다. 이마트 광주점에서 생밤은 1kg에 7980원으로 지난해보다 40% 가량 올랐으며 고구마도 1kg에 2900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0% 정도가 상승했다.

고구마는 생장기인 여름 일조량과 땅속 수분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여름 많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해 땅속 습도가 높아 고구마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거나 캐기 전에 썩어버려다. 밤 역시 올 집중 호우로 속이 잘 얼어붙지 않거나 크기가 작아 상품화 가능한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특히 고구마와 밤은 저장성 농산물로 본격적 소비철인 겨울에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광주점 관계자는 “올 여름 호우로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인상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고구마와 밤은 저장성 농산물로 본격적 소비철인 겨울에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광주점 관계자는 “올 여름 호우로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인상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마트 광주점에서 생밤은 1kg에 7980원으로 지난해보다 40% 가량 올랐으며 고구마도 1kg에 2900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0% 정도가 상승했다.

고구마는 생장기인 여름 일조량과 땅속 수분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여름 많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해 땅속 습도가 높아 고구마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거나 캐기 전에 썩어버려다. 밤 역시 올 집중 호우로 속이 잘 얼어붙지 않거나 크기가 작아 상품화 가능한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특히 고구마와 밤은 저장성 농산물로 본격적 소비철인 겨울에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광주점 관계자는 “올 여름 호우로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인상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농업 대통령’ 오늘 뽑는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김병원 남평농협장·최원병 현 회장 대결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18일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사 강당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는 당초 최원병 현 회장, 김병원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 등 3명이 입후보했다.

하지만 선거를 하루 앞둔 17일 최 후보가 전격사퇴함에 따라 연임에 도전하는 최원병 현 회장과 김병원 남평조합장간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됐다.

농협회장은 지역조합장 1167명이 선출한 대의원 288명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차기 농협 회장은 내년 3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마무리짓고 안착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된다.

이번 농협회장 선거는 선거의 공

후보자 약력	
<p>최원병 후보 (65세)</p>  <p>▲안강 청년회의소 회장 ▲안강농협 조합장 ▲경북도의회의장 ▲농협중앙회 회장</p>	<p>김병원 후보 (58세)</p>  <p>▲동지상고, 포항수산초급대학 경영학과, 위덕대 명예경영학 박사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조합장 ▲전국무배추협의회 회장 ▲농협중앙회 이사</p>

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선관위가 전체 선거과정을 관리하는 첫 선거이기도 하다. 한편 임기 4년인 농협중앙회 회장은 비상근직이긴 하지만 ▲조합

원 회원수 245만명 ▲총자산 287조원 ▲계열사 22개사를 총괄하는 자리가기에 ‘농업계의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국제실버박람회 개최

내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본 등 8개국 135개사 참가

2011 광주국제실버박람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일본 간사이실버서비스협회,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일본, 노르웨이, 대만 등 8개국에서 135개사가 참가한다. 박람회장은 각종 노인용품부터 스마트케어와 U-헬스케어산업 관련 제품, 복지차량 등 국내외에서 생산된 고령친화수용품 1만여점이 선보이게 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친화수용제품 홍보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정책 홍보관, U-헬스케어 홍보관 등 정부 및 유관기관의 정책홍보관 등도 들어선다.

부대행사로는 건강백세포럼과 전남대학교 노인의학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제5차 국제노화심포지엄’을 비롯해 노인보건복지세미나, 교통 약자를 위한 복지차량 세미나, U-헬스케어 세미나 등 관련 학술행사 및 세미나가 개최된다. 또, 해외 관련 산업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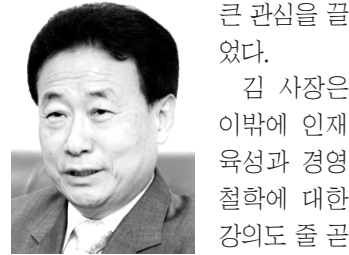


1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1 광주국제실버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노약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욕조를 둘러보고 있다.

이들이 참가하는 수출상담회가 개최되며, 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와 대형 유통업체 및 요양병원시설 구매담당자와의 대규모 상담회도 열린다.

특별행사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청춘100세 건강검진’,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의 ‘든든 100세 한방진료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의 ‘튼튼 100세 치과치료관’, 광주보건대학의 ‘탄탄 100세 건강관리관’ 등 무료 건강검진 체험관이 운영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 ‘대학생 멘토’로



큰 관심을 끌었다. 김 사장은 이밖에 인재 육성과 경영철학에 대한 강의도 줄곧 하고 있다.

‘대기업 원하는 인재상’ 전남대 등서 취업특강

총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털어냈다.

대기업 현직 CEO(최고경영자)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 젊은이들의 멘토로 나섰다.

금호고속 김성산 사장은 최근 취업을 앞두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뭘 지, 뭘 준비해야 하는 지 CEO의 입장에서 고

김 사장은 지난 16일 전남대 광주캠퍼스에 이어 다음날 여수캠퍼스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는 강의에서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인사적인 면접·유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김 사장의 취업특강은 현직 CEO가 면접 노하우를 직접 들려준다는 점에서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지난 10일 (사)인재육성아카데미 취업연수생 특강에 이어 조선대 경상대학 백약포럼·한가람회 초청 특강, 오는 22일 전남대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노경상성(勞經相成·노동자와 경영자가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자)’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우수중소기업 상품 기획전

24일까지 광주신세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18일부터 24일까지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제5회 광주·전남 우수중소기업 상품 기획전’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광주신세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일오

삼식품 등 모두 20개 지역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주요 상품으로는 일오삼식품의 ‘국산돈가스’와 ‘떡갈비’, 제일에스지의 ‘가능성 장갑(등산레저용)’, 진도를 금원의 ‘올금환’과 ‘올금주스’ 등 다양한 업체에서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들 참가 업체에 대해서는 백화점 입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 코스피지수	1876.67 (+20.60)
▲ 코스닥지수	506.54 (+8.96)
▲ 금리 (국고채 3년)	3.37% (+0.03)
▲ 원·달러 환율	1130.70원 (-5.9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포츠타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할인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완도읍 남도리 1-1 (전복장터)

주요 교통: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전복장터, 금광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